



# 전환의 시기, 100여년 전 장두 보다



이지유 '새의 눈, 벌레의 눈'. 전설과 역사 기록 속 이재수의 이미지를 한데 담아내 걸작에 독탄으로 그렸다.

이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전설과 역사 사이에서 부활해 우리의 현재와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문의 064)800-9334. 전선기자 sunny@ihalla.com

이지유 '새의 눈, 벌레의 눈' 전

1901년 이재수의 난 모티브 전설에서 역사로 끌어올렸던 '실기' 퍼낸 누이 이순옥 통해 역사를 기록하는 시선 사유

1901년 '이재수의 난'. 천주교에서는 이 사건을 '교난'으로 불렀고 지배층에서는 '민란'이라고 했다. 이재수의 난을 올곧게 기록하려 애쓴 이는 이재수의 누이동생 이순옥이었다. 오라버니의 한을 풀기 위해 당시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남도 도청이나 조선총독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남의 집 바느질이라도 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곳에

서 제주출신 조무빈을 찾아가 오라버니의 사연을 우리말로 써달라고 했다. 1931년 오사카에서 간행된 '야월(夜月)의 한라산-일명 이재수실기(李在守實記)'가 그 책이다.

제주 이지유 작가가 이 사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로 개인전을 연다. 8월 3-15일 예술공간 이아(갤러리 2)에서 펼쳐지는 '새의 눈, 벌레의 눈'으로 그 중심에는 구술로만 전해졌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기 위해 애썼던 여성 이순옥이 있다.

'새의 눈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조감(鳥瞰)', 벌레의 눈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앙시(仰視)'를 말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역사를 기록하는 눈에 비유해 썼다.

제주와 육지가 만나고, 조선과 외세가 만나는 시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

었지만 하층민 출신 장두 이재수는 전설 속 '날개달린 장수'로 산화했다. 이순옥이 퍼낸 '이재수 실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땅에 묻혔을지 모른다. 현기영의 소설 '별방에 우짖는 새'(1983)와 영화 '이재수의 난'(1999)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다.

이지유 작가는 회화, 사진, 영상 등으로 그 여정을 쫓는다. 왕이 될 수 없는 영웅이 난다는 산방산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진으로 풍수적 의미를 살렸다. 이재수는 전설과 역사의 이미지가 어우러져 살아난다. 구한말 제주 유배인 김윤식이 쓴 '속음청사'에 기록된 이재수는 '사전립(絲鐵笠)을 써서 공작 깃을 꽂고 갑사(甲紗) 전복(戰服)에다 제책을 잡고 안경을 껴다.'

이 작가는 "이 전시가 100여년 전

## 서순실 심방으로 살핀 제주곳과 해녀

문지숙 사진전 8월 3-15일 사진·인터뷰영상·기예 전시



그 시작은 제주 해녀였다. 해녀들의 일상을 훑다보니 그들이 의지하는 곳이 다가왔다. 2017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녀를 카메라에 담아 '바닷꽃' 전시를 열었던 문지숙 사진가. 그가 '신의 딸 서순실 심방'이란 이름으로 제주에서 만난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전시는 제주근교보존회장인 서순실 심방을 중심으로 김녕마을과 해녀, 제주근곳을 다룬다. 문지숙 작가의 사진 30여 점, 서순실 심방 인터뷰 영상, 제주곳판에 걸리는 종이 조형물인 기예가 나란히 나온다. 문 작가가 카메라로 잡아낸 서순

실 심방은 늘상 위험을 안고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만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 병든 자들,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고 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다. 작가는 서순실 심방과 때만 되면 그를 찾는 마을 사람들(단골)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8월 3-15일 예술공간 이아. 첫날 오후 4시 개막 행사에서는 서순실 심방의 질척기 시연이 이루어진다. 전시에 맞춰 사진집을 발간한 문 작가는 9월 18-29일에는 서울에 있는 류가현 갤러리로 향한다. 전선기자

## 시로 읽는 4.3 (19)

###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

김수영

우선 그 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 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 놈의 사진을 태워도 좋다  
협잡과 아부와 무수한 악독의  
상징인  
지긋지긋한 그 놈의 미소하는  
사진을  
(.....)  
선량한 백성들이 하늘같이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우러러보던 그 사진은  
사실은 억압과 폭정의 방패였느니  
썩은 놈의 사진이었느니  
아아 살인자의 사진이었느니  
(.....)

이제야말로 아무 두려움 없이

-1960년 4월 26일 이른 아침

이승만(李承晩)은 4·3 당시 국무회의에서 강경진압작전을 지시했다. 4·3 당시의 책임은 당시 정부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이며, 미군은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제주도에 불법적으로 입산자 대부분이 '공산당 선전에 속거나 집이 불에 타 갈 곳이 없어 도로 산에 올라간 자'임에도 이들을 '폭도'라 해 무차별 총살을 명령했다.

이승만이 내세운 최대 이슈는 '반공'이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도 바로 이런 분위기에

서 탄생했다. 서북청년회를 동원한 사실도 쫓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4·3 당시 군·경을 이승만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승인이 없이는 군사이동도 불가능했다. 이승만은 친일 경찰을 철저히 활용했다. 4·3사건, 여순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장면 부통령 암살 사건 등의 배후에는 친일 경찰이 있었다. 이승만은 '반공'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었다. 당시에는 친일행위 청산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쉬웠다. 이승만은 친일파청산 주장은 공산당의 연관성이 긴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춤과 소리에 이어도로 향하는 여정

마로 '이어도:더 파라다이스'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 공연

무형문화재 제주근곳을 바탕으로 춤과 소리, 사물놀이로 현대무용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이다.

이어도 설화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 서귀포에 펼쳐진다.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는 2019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두 번째 레퍼토리 공연으로 8월 2일 오후 7시30분 김정문화회관 무대에 '이어도: 더 파라다이스'(연출 송해인)를 올린다.

이 작품은 풍량에 휩쓸린 한 소녀가 신비한 낙원인 이어도로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환과 흥의 정서로 풀어낸다. 제주도

박수현 송해인 신은오 양호성 양기원 오승진 오유정 장문선 황주식 씨가 출연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22-0129. 전선기자

### 문화가 쫓지

갤러리 감저 김종현 사진전

김광협문학상 최서진 시인

통일평화 영화로 말하기

영화보기와 영어대본 읽기

김종현 한국사진가협회제주도지회장의 '지역속의 제주' 양코르전이 8월 1-31일 갤러리 감저(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22) 초대로 열린다.

30년 넘게 제주 풍물을 카메라에 담아온 김종현 사진가는 이 전시에서 흑백 화면에 담긴 초가와 아름다워 풍년이 어울린 김녕리 올레, 풍선배(낙배)를 타고 비양도에 자리잡으러 가는 장면, 매립 전 담뚝 해안가 야경, 신제주초등학교 운동회 등을 선보인다. 문의 010-6811-1133.

시 전문지 '발견'이 주관하는 김광협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제4회 김광협문학상 수상자로 최서진 시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시집 '우리만 모르게 세가 태어난다'. 충남 보령 태생의 최서진은 '심상'으로 등단했고 시집 '아몬드 나무는 아몬드가 되고'가 있다. 시상식은 9월 21일 오후 5시 서울 충무로 코문홀에서 열린다. 김광협문학상은 서귀포 출신 김광협 시인(1941-1993)의 문학 세계를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통일평화 영화로 말하기 제1회 씨네토크가 8월 1일 오후 7시 남문서점 2층에서 열린다.

이날 '하늘색 심포니'를 상영한 뒤 박영이 감독, 강봉수 제주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눈다. 목요일영인문학 남·문, 인문술이다. 가장자리 농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8월 8일에는 '히로시마', 8월 15일 '반딧불의 묘', 8월 22일 '야스쿠니', 8월 29일 '호텔 하이비스커스' 상영이 예정됐다.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010-2691-5426.

제주문화포럼이 '2019 문화교실' 프로그램으로 '영화보기와 대본읽기'를 개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영화를 함께 본 뒤 대본을 읽으며 해외 문화를 익히고 언어도 연습하는 모임이다.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강해 매주 토요일(마지막 주 제외)에 진행될 예정으로 '즐거워 배우는 모임'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제주문화포럼에 가입하면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4)722-6914.

**WINIX**

**바른 건조 위닉스 텀블건조기**

도내 최저가 HB8M80-HWK(화이트)  
HB8H80-HVK(실버)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0

WINIX 위닉스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 공항

신광로터리 ● 빽스 ● 요양병원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신제주로터리 ▼